

88올림픽의 場外 金메달

'88 서울올림픽 유치작전에 개가를 울리고 제 24회 올림픽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또렷또렷하게 선언하던 국제올림픽위원회 사마란치 위원장의 모습이 지금도 선하다. 또 끝이 어 벽찬 감격으로 서로 껴안고 환호하던 우리나라 유치단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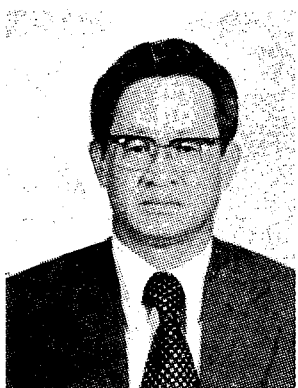
그러나 그 감동의 순간이 채 식기도 전에 연이어 들어온 외신은 우리나라처럼 환경오염이 극심한 고장에서 어떻게 인류대사의 하나인 올림픽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통명스런 반대여론이 담긴 것이었기에 필자의 마음은 어지간히 무거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도 그럴것이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여자 마라톤대회 때 우승후보로 지목되었던 뉴질랜드 선수가 대기오염이 심해서 우승을 놓쳤다고 불평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2년전인 '86년에 개최한바 있었던 제 10회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한민족이 슬기롭게 대처하였듯이 이번 서울올림픽 대회기간에도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마침내 「장의 금메달」 감이었다는 호평을 받게 되었다.

한 환경인으로서 어지간히 흐뭇하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대기환경의 질은 당초 예상한 값보다는 훨씬 더 맑고 깨끗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내외를 막론한 여러 식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니 이 이상 흐뭇한 감회가 또 있겠는가 싶다. 이와같은 사실은 특히 지난 10월초 올림픽이 막 끝난 직후



노재식 / 본협회 부회장



일본에서 개최된 “제 2회 대기과학과대기의 질에의 응용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여러 나라 학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 우리나라 환경의 쾌적함을 칭찬해 줄만큼 맑은 환경에서 서울올림픽이 치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와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배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맺을 수 있었던 열매라고 보아야 한다. 즉, 시민들의 자가용차 짝출수 운행, 거리의 물청소, 분진배출업소의 작업단축 등 이른바 깨끗함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저황유공급 확대, 대형건물에 대한 액체천연가스(LNG) 공급, 저공해자동차 및 무연휘발유의 공급확대 등 정부의 용의주도한 시책이 상승효과를 빚어낸 주요한 역작인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동시에 우리나라 가을의 날씨를 지배하는 이동성 고기압대가 올림픽기간중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덮고 있었기 때문에 비구름의 생성자체마저 막아 주었으며, 약간의 비를 뿌렸던 기압골조차 현저히 약했기 때문에 이른바 천고마비의 전형적인 좋은 날씨가 동 기간중 계속되었는바 이또한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쾌적한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인 인위적인 노력과 자연이 베푼 천연의 혜택에 힘입은 것이며, 세계 방방곡곡으로 송출된 TV수상기의 밝고 깨끗한 배경영상은 흔히 ppm이라든가 입방미터당 마이크로 그램 등으로 표시되는 대기오염도 단위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서울의 대기질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웅변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사실 남산타워에서 인천 앞바다가 보일 정도였고 날이 갈수록 청명해진 한국의 맑은 초가를 날씨에 매혹되어 관전은 뒷전인 채 옆치불구하고 아예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던 복구의 미녀들이 TV수상기를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경기장 부근의 대기환경만이 좋았던 것은 아니다. 「수질이 좋아서 좋

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는 어느 외국 수영선수가 있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 수영만 요트장과 미사리 조정경기장의 수질도 각각 환경기준치 보다 낮아서 3만5천명에 달하는 선수·임원단과 연인원 24만명에 달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본다.

그리고 대기나 수질오염을 자기기록에 결부시켜 트집잡으려는 선수도 단 한명 없었다는 사실은 「서울 올림픽 환경도 금메달」이라는 명예까지 받게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올림픽을 치룰 수 있게 한 우리들의 참여와 정부의 노력이 단지 올림픽개최기간을 전후한 일정기간만을 위한 대책으로 끝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향후의 환경보전 모델로 삼는 환경보전의 새 장을 열어야 한다고 본다.

아닌게 아니라 환경청이 최근에 밝힌바에 의하면 10월 한달동안 서울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올림픽개최기간의 그것에 비해 3배이상 악화되었고 또 먼지 농도도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한다. 또 한강의 수질도 다소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정말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따라서 과거 어느 올림픽대회보다도 쾌적하고 또 깨끗한 환경에서 치룰 수 있었던 제 24회 서울올림픽은 환경보전을 몸소 시범해 국민의 저력을 과시한 환경보전에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본다.

이제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은 나쁘거나 더러운 역사가 반전되지 않도록 모든 슬기와 힘을 모으고 쏟는 일일 것 같다. 부산 수영만 정화대책이 효과를 거두어 당초 우려했던 요트경기장 오염문제를 분석시킨 성과도 실로 대단한 것이라고 본다.

이점 앞으로는 환경위생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가 몸소 이룩할 수 있었던 쾌적한 올림픽환경을 영구히 그리고 지속적인 것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